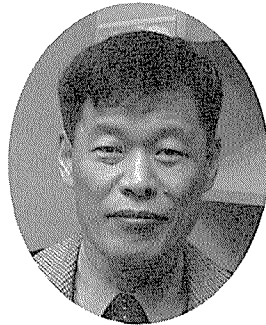


새천년 한국석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매체가 되기를...

진정한 새천년인 2001년 춘추지절에 대한석유협회가 발행하는 격월간지인 석유협회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것을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석유협회보가 성년이 되기까지 여러 어려움속에서도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임직원 여러분과 편집관계자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석유협회보는 제2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매우 어려웠던 시절인 지난 81년 초 창간된 이후 지금까지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석유전문지 시장에 석유에 대한 지식과 석유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심층분석한 글을 게재함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업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므로써 한국석유산업이 발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봅니다.

요즘의 국제유가의 흐름을 보면 작년말보다는 약간 떨어졌지만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기름이 한방울도 나지않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볼 때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석유의 안정적 공급이 가장 큰 우리의 당면과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석유에너지가 아직도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주력 에너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태림

〈한국석유공사 홍보팀 과장〉

이와같이 우리산업에 기초가 되는 석유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잡지인 석유협회보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 보면 석유협회보는 널리 흩어져있던 석유 지식과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기에 석유업계와 필요한 일반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협회에서 발간하는 석유연보 및 석유의 기초상식 등 일반간행물은 석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 학부의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자료로 이용되어 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석유협회보는 시의적절하게 석유정책사항에 대한 자료를 특집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업계의 정책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석유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석유의 중요성과

에너지 소비절약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게재하여 홍보매체로서의 기능도 바르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 지켜본 애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석유협회보가 시대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는 전문잡지로 발전되도록 하는 바람에서 몇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첫째, 취급하는 주제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석유협회보는 석유에 관한 여러 의견을 게재하여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유협회보의 기획편집에 있어서도 어떤 한측의 의견만을 게재하기보다는 여러편의 다양한 의견을 게재해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는 잡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상류부문쪽에도 기사의 비중을 좀 늘렸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 세계 5위, 소비 세계 6위의 에너지 대소비국입니다. 게다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우리가 자주개발한 원유가 많아 그것을 도입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경제에 드리우는 주름살은 매우 얇아질 것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석유개발쪽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정책제안 및 시론등을 제시한다면 큰 효과가 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셋째,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석유협회보의 자료들이 이에 게재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정보독점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정보공유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또한 스피드 경영의 시대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자협회보까지 함께 발행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년이 된 이때까지 협회보에 실린 시론, 정책

자료등 석유와 관련된 옥고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공한다면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결정자들, 석유를 연구하는 학자들, 옛 자료를 필요로 하는 업계관계자 등 모든 이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유협회보도 가을걷이를 고대하는 농부들이 또다시 씨를 뿌릴 때 한 알의 씨앗도 소중히 여기듯이 성실근면히 한 꼭지의 기사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뭄과 풍수해 등이 농부의 공들인 노력들을 앗아가더라도 그들은 실망치 않고 또다시 씨를 뿌립니다. 석유협회보 또한 그와같은 농심으로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한국석유산업의 비전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많이 심는다고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틈과 여유가 있을때 제대로 자라는 것이 식물의 자연의 이치입니다. 석유협회보도 가능한 많이 모든 기사를 다루려는 욕심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중요한 기사부터 다루어 가십시오. 그렇게하려면 여러제약 조건과 난관이 있겠지요. 그렇더라도 실망치 말고 현실적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뚜벅뚜벅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한줄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진정 협회보 편집장을 비롯한 관계된 직원들이 모두가 뚜렷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작은 씨앗을 뿌려나갈 때 석유협회보는 새천년에도 국민과 정부와 업계에 사랑받는 우리나라 석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변지로서 거듭날 것입니다. ♣